

적폐청산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인철 변호사 (이인철 법률사무소)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영화진흥위원회 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있다. 미디어와 문화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2017년 한국사회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 폭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폐단을 없애고 쇄신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정치적 보복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으로 의심받고 있다.

적폐청산의 발단이 광장의 구호에서 시작되고 미디어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한편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뒤섞

이면서 번덕스러운 여론에 의해서 전개되는 여론 정치라는 지적이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과 증거에 뒷받침되지 아니함에도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이거나 편파적인 주장을 따라서 적폐라고 단정 짓는 상황은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소위 언론적폐청산은 폭압적인 방법도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자인 노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단지 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부당한 공격을 받고, 그들에 의

해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이 퇴진 요구를 받았다. 제시되는 사퇴이유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비난성 주장들이 많다. 노조가 선호하는 사람들로 방송사의 이사진과 경영진을 구성하는 결과에 이른 것을 보면 노조가 직접 방송을 경영하겠다는 것이어서 공영방송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친정부적인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방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적폐청산은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명칭을 달리하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과거의 적폐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가해자와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백서로 만들어서 발표함으로써 조사 결과를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방어의 수단이 허용되며 판결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의 원칙이다.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수사기관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 실질상의 수사를 하고 법관이 아닌 비공식 기관이 재판을 하며 법원이 아닌 기관이 백서라는 형태로 판결을 내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권한있는 기관이 아닌 비공식적인 조직이나 이해관계자의 관여 하에 여론몰이를 통해 진행되는 적폐청산은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의한 사람 쫓아내기와 흡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한 조사와 결론을 내리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자격이 부여

된 사람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진행 절차를 규정하여서 법에 따른 조사와 결론 도출이 되어야 한다.

수사권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실질적인 재판을 하고 조사의 결과를 백서라는 명칭으로 발간하여 판결이 아님에도 조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근거없는 월권행위이며, 위법한 행위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사실상의 수사와 판결을 내리는 조사절차가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행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적폐청산조직을 통한 홍위병식의 인민재판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의 공식적인 조직들을 무력화시키기에 이른다. 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비공식 조직이 공식적 조직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면 기존의 공적인 조직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고, 법과 절차에 기초해야 하는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는 결과에 이른다.

사회의 주류가 된 세대의 정치적 꿈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과제로 삼는 문제인 정권의 높은 지지도는 적폐청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촛불시위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의해서 달성된 정권의 몰락과 새 정권의 탄생은 보수에서 진보로의 이념의 축의 변화라는 설명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교체 결과라는 측면이 크다.

1980년대 당시의 젊은 세대는 한국근대사와 한반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배우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통해서 그들의 시각을 실천하

는 경험을 가졌다. 80년대 소위 386세대는 한 세대의 공통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된 세대다. 그들 386세대는 2008년 광우병 보도 때 촛불을 밝혀서 정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고, 10년의 기간이 지나 다시 촛불을 들게 된 것은 그들이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념 승패의 결과라기 보다는 공통된 사유를 정체성으로 삼은 한 세대가 시간이 흘러서 다수의 위치를 점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들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오늘날의 주류 정체성의 기저에 있는 80년대 386세대의 소위 이념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폐쇄적 종족주의와 같은 결코 진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념 성향으로 비판을 받는다. 여하간 당대의 공유된 지식은 실천이라는 경험의 지형하에서 한 세대를 그들만의 공통의 정체성으로 형성하였다. 이념 시대의 퇴조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현실 변화에서도 위와 같이 경험으로 확보되고 정서적 유대로 공유된 그들 세대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이 세대의 생각이 우리 사회 주류의 사고방식이 되었다.

주류가 된 이 세대가 공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가치가 그 실천에 있어서 앞서 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대 교체에 따라서 사회의 주류가 된 계층이 자기들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적 주류가 된 세대는 자연스레 그들의 경험 속에 녹아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그것이 2008년 광우병사건 이후 10년에 걸친, 보수의 붕괴를 이끌게 되는 이들의 도

전이었고, 이제 그것이 실현되었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10년전 촛불의 추억으로의 회귀이며, 그들 세대가 젊었을 때인 80년대에 형성된 사유로의 복귀이고, 80년대 사유의 공동체가 오늘의 현실에서 자신의 사유를 구현하려는 목적의 방향성을 가르킨다. 이 세대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현실화 작업이 적폐청산이다.

정치의 세계 - 꿈과 이상의 세계

영화 택시운전사를 비롯하여 80년대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사회 주류가 된 기성세대의 경험에 호소하는 복고풍 영화의 유행이다. 계속하여 영화는 80년대의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조명하고, 친일파가 득세하던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을 다루며, 조선 시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과 자본의 근본적인 대립구도에 기초한 노동의 해방을 외친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사회의 주류가 된 세대가 과거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과 현실관에 기초해 있으며, 이러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지향하는데 그러한 이상의 현실화는 정치다.

정치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꿈과 이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세계다.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화 작업은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활동이며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과제의 방향성 및 수단의 당부에 대해서 신앙의 입장에서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도시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에 대해서 신앙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앙

은 자신이 속한 곳과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전제로 하여서 살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이 언제나 공동체의 이상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 세상에서 존속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수단이다. 모두의 정치적 꿈과 이상에 대해서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단일한 방향성을 신앙이 제시해 주지는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꿈과 이상의 추구가 힘을 얻는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자기 정당성이다. 곧 그것을 추구함이 선함의 실천이며,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에 바탕을 둔다. 선과 악이 해결되는 궁극적인 이상향이 정치의 목표로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어떤 정치체제도, 어떤 정치적 운동도 선과 악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수단일 수 없다. 기독교신앙은 그러한 정치적 꿈과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원죄와 구속의 필요성 및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기독교신앙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없으며, 그것이 기독교신앙의 본래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가르친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인간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인간은 구속 받아야 할 존재이다.

바벨탑의 교훈이 가르치듯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는 섭리를 이야기한다. 꿈과 희망이라는 이미지의 세계인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신앙이 명시적으로 당부의 답변을 내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구체적인 현실속의 구체적인 인간과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가 가리우는 현실의 세계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추동력을 얻는 정치 운동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천되기에 구체적인 현실을 가린다는 위험이 항상 따른다. 정치는 힘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서 보편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적폐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단지 과거의 특정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구체적인 강령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의한 이익의 충돌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할 때에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비난되는 일방의 기준에 의한다는 잘못을 피할 수 있고, 단순히 정치적 반대편을 지목하여 말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단순화시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신앙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 신앙이고, 착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의무인데,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은 선악의 구분을 가리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삶을 추구하기에 남을 심판할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는 종교적 자기 위안은 문제다. 하나님은 죄인도 교회로 부르시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개혁과 거대한 정치운동의 진행 과정이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들을 무시

하면서 진행되어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다. 현실세계에서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언제나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선한 이와 악한 이가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의 어떤 개혁적인 정책도 모두의 선을 구현하는 좋은 결론만을 내린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타락한 인간 세계의 현실이 그러하다. 폴 존슨(Paul Johnson, 1928-, 작가)이 지적하였듯이 현대사는 국가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실현할 목적의 사회공학의 거대한 실험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의 상실과 재산의 피해로 얼룩졌다. 이는 이념에 의한 정치적 실험을 추진하는 것의 잘못된 결과다. 정치적 실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의 사회적 유익이나 불리함 및 선하거나 악한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신앙의 방법과 수단

흔히 신앙은 당위이므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부여되고 상대방에게는 의무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부과가 나의 권리로 주장됨으로써 상대방에게까지 당위를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신앙이 항상 정치적 과제를 숙명적인 과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실행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답이 나오는 문제로 논할 것은 아니다. 기독교신앙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과제에 있어서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기독교신앙이 제시하는 해답은 신앙인 각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

한 개별적인 답변으로 제시된다. 기독교신앙은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인은 구체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단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시를 기계적으로 부여받거나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2017년의 적폐청산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대한민국은 세대교체로 인하여 주류가 된 세대가 그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한 정치적 실천은 구체적 현실에서는 다른 편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의 꿈과 이상과의 충돌이라는 상황에 이른다. 꿈과 희망 및 이상의 충돌이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하에 진행되는 정치 상황은 시대의 유행이지만 언제나 유행은 지나가고 항시 시대는 변천한다. 세대는 바뀌고 새로운 세대는 다시 출현한다. 꿈과 이상의 충돌, 희망의 충돌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진 기존의 꿈과 이상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상대방과 주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하겠다.

기독교 신앙은 긴 역사를 가졌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정권보다 길다. 민족과 국가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다. 역사적 신앙은 이념적, 시간적, 공간적인 구획을 넘어선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는 여정이다.